

국정위, 세월호 미수습자 유기족 면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목포신항 세월호 현장을 찾아 세월호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유기족을 만났다.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시의 목포신항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지금은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가족이 피해자들이 머물렀던 곳을 보존해달라는 의미로 선체 보존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목포 방문 가족 만나 "정치적 환경, 세월호 특조위와 근본적 달라"

며 "선조위에서 검토 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미수습자 가족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의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반 조은화 양, 2반 허다운 양,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고창석·양승진 씨,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 이영숙 씨 등 9명이다.

지난 4월 인양 후 현재까지 수색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운·조

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신원이 확인됐다.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법을 만드느라 애쓰는 것은 알지만 배가 올라와서 석 달이 지났는데 선체조사위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수습자가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이 못 느끼고 있다"며 "(유해를) 찾지 못한 가족을 보면 미안해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분명하게 미수습자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선체조사법은 미수습자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9명의 미수습자 중 4명은 찾았지만 5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미수습자를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위원장은 유기족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도 면담을 진행한 뒤 목포해양수산청으로 이동해 목포항의 현황을 청취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나주시에 위치한 6차산업 경영체인 명하햇곡을 방문해 6차 산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춘정 기자

성형수술로 30년 간 체포 피한 마약왕 구속

브라질 경찰이 성형수술로 경찰의 눈을 속여 지난 30년 가까이 체포를 피해온 남미의 악명높은 마약왕 루이스 카를로스 다 로차를 1일 체포했다고 BBC와 알지자라 방송 등이 전했다.

다 로차는 '하얀 머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남미의 대규모 코카인 왕국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다 로차에게 최소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다 로차에 대해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매우 신중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을 바꾸고 비토르 루이스 데 모라에스라는 가명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브라질 서부 마토 그로소주의 소리 소시에서 새로운 마약 용의자로 붙잡힌 비토르 루이스의 사진과 다 로차의 오래 전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 로차의 마약 조직은 중화기 사용까지 서슴지 않는 등 특히 폭력적인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볼리비아와 페루,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생산, 브라질의 항구를 통해 유럽과 미국으로 판매해 왔다. 현재 유럽과 미국으로 공급되는 코카인의 최대 80%가 다 로차의 마약조직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조직은 매달 5억 가량의 코카인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 로차는 약 1억 달러(1145억원)의 개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당국은 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영국서 유전자 이상 '핑크색' 메뚜기 발견

최근 영국에서 온몸이 분홍색인 메뚜기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의하면 이미지추어 사진작가인 리처드 테일러는 영국 동부 서퍽 주의 임스워치에 위치한 작은 호수의 갈대밭을 우연히 지나다 이 핑크색 메뚜기를 발견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호숫가를 지나는데 핑크색 메뚜기가 초록색 갈대 잎 위에 앉아있었다"고 테일러는 말했다. 때마침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테일러는 재빨리 핑크색 메뚜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데 성공했다.

그는 또 "사람들은 핑크색 메뚜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냐고 묻는데, 신명한 핑크색이라 눈에 잘 띄었다"고 설명했다. 이 메뚜기는 온몸이 핑크색을 띄고 있으며 눈은 흰색이다.

메뚜기는 주로 초록색이거나 갈색이지만, 희귀 유전자 이상으로 핑크색 메뚜기가 생긴다고 테일러메일은 설명했다.

곤충이나 동물 가운데 종종 몸색깔이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발증(erythrim)'이라는 일종의 유전 질환 때문이다. 적발증은 붉은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내거나 검은 색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유전 질환이다.

그러나 핑크색 메뚜기는 눈에 띄는 색깔 때문에 초원 등의 자연환경에 몸을 숨기기 힘들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테일러메일은 지적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서 3건 연쇄 폭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일 일련의 자동차 폭탄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시리아 국영 TV가 이날 보도했다.

국영 TV는 다마스쿠스 중심부 타헤르 광장 인근에서 이날 아침 일찍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TV는 또 경찰이 다른 공격자를 찾는 동안 또다른 두 곳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IS, 아프간 북부서 탈레반 10명 참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슬람국가(IS)와 탈레반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프간 북부 저산부의 아크발락 마을을 점령한 IS 무장세력이 지난달 30일 체포된 탈레반 반군 10명의 목을 참수했다고 현지 언론 데일리 위사가 2일 보도했다.

아크발락 마을이 위치한 저산부 다르잡 구역은 지난 수 주 동안 IS와 탈레반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혀왔던 곳이다.

IS나 탈레반 모두 이 같은 데일리 위사의 보도에 대해 아직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스

전남도, 적조·고수온·태풍·해파리 '비상'

전남도는 적조·고수온·태풍·해파리 등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수산 분야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수협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는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 수온도 0.5~1.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조나 해파리가 빨리 발생할 전망이다. 어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적조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서는 입식밀도를 조절하고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재해 발생 전 조기 출하를 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이 같은 양식어장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재해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해 재해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피해 발생 대비 예찰·예보를 실시하며, 상시 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계별 사전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과 양식생물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인위적 힘으로 방지할 수 없고 재해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어업인 스스로 어장 관리, 입식 신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 노력을 하고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예방 대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연잎에 맺힌 보석같은 물방울 1일 오전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인근 습지에 심어진 연잎에 보석 같은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빛나고 있다.

광주시, 신창지구 방음터널 건설비 마련 소송 제기

광주시가 수완·신창지구 주변 제2순환도로 4구간의 방음터널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지법에 L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통행량 증가로 주민들이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를 건의해왔지만, 광주시가 400억원으로 추산되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수완·신창지구를 개발·분양한 LH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아파트 단지 5곳의 소음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터널(길이 1.87km·높이 6m)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구간의 소음이 최고 70.7dB을 기록하면서 법정기준치(주간 65dB·야간 55dB 이하)를 웃돌았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01년 LH와 맺은 '수완지구 간선시설 부담에 관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LH에 추가 부담금 지급을 요구했다.

협약 3조에는 "LH는 개발이익 발생시 이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토지를 불납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LH가 택지개발로 분양 차익을 남긴 만큼 개발 이익의 50% 수준인 425억원에 준하는 토지를 이전 등기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제2순환도로 4구간 사업

비용으로 920억원을 광주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개발이익 산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광주시가 사업비 920억원 중 704억원은 예산 목적(4구간 건설)에 맞게 사용했지만, 216억원을 수완·신창지구와 무관한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 개설 공사에 썼다는 입장이다.

즉, 간선시설(단지 밖에 설치된 도로·상하수도·전기 등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 혐의 없이 예산을 썼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수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해당 도로가 간선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영민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